‘사립유치원 폐원’ 실업자 전락 교사들…교육당국 ‘나몰라라’

사립유치원 무더기 문 닫는데 실업 교사 규모 파악 못해

사립 재취업 어려워…“임용고사 통과하면 경력 인정”

노량진서 임용 고사 준비하는 10년차 교사들 수두룩

사립유치원이 무더기 폐원을 추진하면서 해당 유치원 교사들은 고스란히 실업자가 될 위기에 놓였다.

해당 유치원에 다니던 어린이들은 대부분 다른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으로 옮기고 있지만 교사는 교육당국의 관심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최근 교육당국 등에 따르면 교육부나 일선 시도교육청은 현재 국공립유치원 교사수급은 적극 논의 중이지만, 사립유치원 교사 문제는 손도 대지 않고 있다.

유아교육정책과 관계자는 “일자리를 잃는 사립유치원 교사 수는 아직 파악하지 못했으며, 필요성도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폐원을 추진한 유치원 면면을 살펴보면 경영 악화로 문 닫은 곳이 상당하지만, 이번 회계비리 사태 이후 운영 의지를 잃고 폐원을 추진한 원장이나 설립자도 적지 않다. 갑작스레 실업자가 된 교사들을 두고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안타깝다는 반응이 나오는 이유다.

학부모 모임인 ‘유치원 무단폐원 119’에서는 폐원으로 일자리를 잃는 유치원 교사들의 재취업 알선, 고용위기지역 지정 등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학부모들은 “사립유치원은 고용보험이 아닌 사학연금 가입 대상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실업급여도 받을 수 없는 등의 불이익이 있다. 장시간 노동에 따른 법정 초과근로수당(연장·야간·휴일 근무)도 받지 못하는 유치원이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현재 국공립유치원 확충에 주력하고 있다. 대부분 신규임용을 통해 정규 교사를 선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 사립유치원 교사들이 국공립유치원 교사가 되려면 방법은 두 가지다. 우선 기간제 교사가 될 수 있지만 신분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교육당국 차원에서 채용을 자제하는 추세다. 제한적으로 휴직을 대체하는 기간제 교사로는 채용 가능하지만 이마저도 자리가 많지 않은 게 현실이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임용고시에 합격하는 것이다. 실제 경력직은 제한이 없고, 사립유치원 교사로서 경력이 있는 이가 국공립유치원 임용고사를 통과할 경우 호봉이나 승진 요건으로 경력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막 대학을 졸업한 인재들과 경쟁해야 하며, 언제 통과할 수 있을지 모른다는 부담이 따른다.

이 때문에 경력 1~3년차 교사부터 10년이 넘는 교사까지 노량진 학원가에 몰리는 것으로 파악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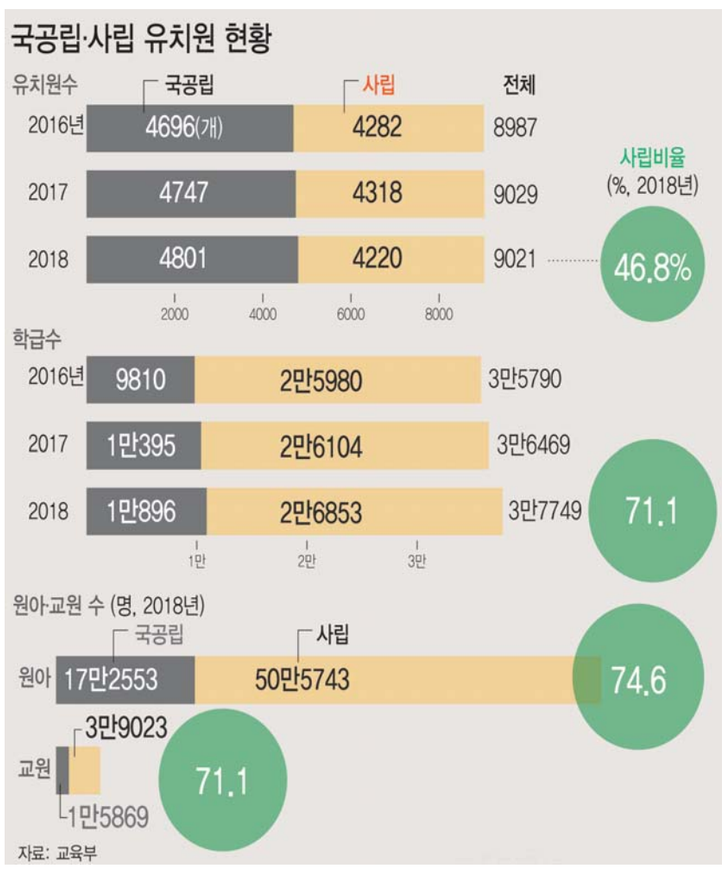
한 국공립유치원 교사 임용시험 준비생은 “올해 9월 증원되는 유치원 신·증설에 대비해 상반기 중 추가시험이 치러질 예정이라 일반 사립유치원 교사들까지 사표를 내고 준비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사립학교 폐교 시 해당 학교 교사들을 국공립학교 교사로 채용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내세우며, 유치원에 대해서도 같은 사례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교육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임용령에 사립학교 교사를 교육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도록 하는 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교육공무원법 등에 따르면 사립학교 근무경력이 3년이상인 자, 또는 폐교·폐과나 학급감축으로 퇴직했거나 과원이 되는 교사를 국공립학교 교사로 임용할 수 있게 했다.

실제 지난해 무단폐교 논란이 일었던 서울 은혜초등학교의 경우 해고된 교사들은 이 조항을 근거로 교육청에 국공립학교 교사로 전환을 요청했다. 그러나 서울교육청에서 사립학교 교사를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이유로 거부하면서 무산된 바 있다.

뉴시스



광주·전남 폐원 추진 유치원 13곳…“원아 대부분 구제”

폐원 인가·신청 원아 115명, 97.4% 사실상 전원 완료

학령인구 감소로 잔여정원 발생 3월 이내 배치 가능해

광주·전남에서 경영난 등으로 폐원을 추진 중인 유치원이 10여 곳에 이르고 있다.

유치원이 문을 닫아 갈 곳이 없어진 원아들의 대부분은 인근 공·사립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등록을 마친 상태여서 폐원에 따른 후유증은 그닥 심각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7일 광주·전남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3월 신학기에 맞춰 폐원을 추진중인 사립유치원은 광주가 8곳, 전남이 5곳에 달한다.

이 중 폐원 인가를 받은 곳은 전남 광양 Y유치원 1곳이고, 신청서가 정식 접수돼 폐원 승인 절차를 밟고 있는 곳은 광주 N, S, J유치원 등 3곳에 이른다. 나머지 9곳은 폐원을 앞두고 원아 모집을 하지 않거나 3월 전후로 폐원을 추진중인 유치원들이다.

인가·신청이 완료된 4곳에 재원중인 원생은 광주가 86명, 전남이 29명으로, 광주·전남 합쳐 모두 115명에 이른다.

이들 가운데 학부모가 마음을 정하지 못한 1명과 공립유치원으로의 전원(轉園·유치원을 옮기는 일)을 추진중인 2명을 제외하고 모두 인근 공·사립 유치원으로 등록을 완료했다. 재배치를 통한 구제율은 97.4%에 이른다.

광주지역에서 폐원을 적극 검토중인 M유치원(24명), H유치원(34명), K유치원(50명), I유치원(24명), 또 다른 H유치원(45명) 등 177명의 원아들도 대부분 인근 공·사립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으로의 재배치가 계획상 모두 무난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광양, 순천 등 전남지역 4개 폐원 추진 유치원들도 소속 원아들의 전원 대책을 사실상 완료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교육 당국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공급 과잉과 경영난이 지속되면서 폐원이 자연스레 증가할 것으로 보고 원아 수용 등 관련 대책을 마련 중이다.

시 교육청 행정예산과 관계자는 “학부모 의견 취합과 교육청 감사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최종 폐원 인가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며 “3월 개학 전까지 폐원되는 유치원이 여러 곳에 이를 것으로 보이지만 잔여 정원 등이 충분해 신학기 전까지 모두 인근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배치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만 감사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일부 유치원의 경우는 감사 일정 등을 감안할 때 3월 이후에 폐원이 결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교육부는 최근 전국 시·도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사립유치원 폐원지역에 추가적으로 신·증설되는 국공립 유치원에 대한 추가 모집을 할 경우 폐원 예정 유치원 유아들에게 최우선적으로 자격을 부여할 것’을 지침으로 내려보낸 바 있다. 또 추가로 신·증설하는 국·공립 유치원이 없는 경우엔 기존 국·공립의 남은 인원을 추가모집할 때 우선권을 부여할 것을 권고했다.

지역공감 미래창조 정론직필
湖南新聞
전화 062)224-5800
팩스 062)222-5548